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 www.dangjinart.co.kr |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당진문예의전당)

당진문화재단 당진문예의전당 소식지 문화가있슈

제28호 2023년 11월

문화가 ISSUE

**예술인 열전** | 2023 키즈스테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 K-컬쳐의 모든 것을 담은 특별한 공연 탄생!

**무대와 객석 경계 사라진 마당극 형식으로 특별**
**'각설이타령' 등 전통과 디제잉 등 현대의 만남**

당진문화재단이 K-컬쳐의 모든 것을 한 무대에 모은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를 오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K-콘텐츠의 명가 HJ컬쳐키즈에서 제작하고, 대표기관인 당진문화재단을 주축으로 하남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안성맞춤아트홀, 익산예술의전당, 하남문화재단 총 7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업해 초연하는 창작 뮤지컬이다.

## 조선시대 이야기꾼 '전기수' 소재로

K-컬쳐 총체극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는 조선 후기 소설을 전문적으로 낭독해주던 직업인 '전기수'를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이야기는 조선 팔도 최고의 이야기꾼을 뽑기 위해 경연을 펼치면서 시작된다. 해당 경연에서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선정되는 우승자에게는 왕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영의정의 서자 '김옹'은 춘향전을, 왕실의 공주 '이자상'은 홍길동전을 준비해 각자의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 음악·무용·형식 등 K-문화 총망라

이번 공연은 K-컬쳐를 총 망라하는 요소들로 구성됐다. 먼저, 우리의 얼이 담긴 노래인 〈군밤타령〉, 〈각설이타령〉, 〈사랑가〉, 〈어사출두〉 등을 바탕으로 기타와 베이스, 드럼 등의 밴드 악기와 해금, 피리 등의 전통 악기를 함께 연주해 다채로운 K-음악 사운드를 들려준다, 뿐만 아니라 K-댄스인 한국무용과 전 세계가 사랑하는 비보잉, 디제잉부터 K-무술인 태권도까지 전통과 현대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신선한 K-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의 특징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고 배우와 관객의 구분이 없는 마당극 형식을 적용한 한국형 뮤지컬로 관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작품 내 이야기꾼은 공연 중간마다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는 관객들이 직접 최고의 이야기꾼을 뽑기도 한다. 이렇듯 공연은 다양한 관객 참여형 이벤트가 더해져 공연에 한층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 "K-컬쳐 결합한 새로운 뮤지컬"

제작을 담당한 HJ컬쳐키즈 관계자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K-컬쳐를 결합한 이머시브 형태의 뮤지컬인 만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창작에 임했다"면서 "이번 작품에서는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컬쳐를 하나의 이야기로 녹여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제작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고 전했다.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는 10월 하남문화예술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김포, 안성, 익산, 오산을 거쳐 마지막으로 11월 24일, 25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막을 올린다. 공연 티켓 가격은 R석 3만 원, S석 2만 원이다. 청소년(24세 이하)의 경우 50% 할인이 적용되며 예매는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41-350-2911)를 통해 가능하다.

### 공연 정보 및 예매 안내

- **일 시** 2023. 11. 24.(금) 10:30 / 19:30
  11. 25.(토) 11:00 / 14:00
- **장 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6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
- **소요시간** 80분(인터미션 없음)
- **예 매**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
  (www.dangjinart.kr)
- **티켓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50% 할인, 이외 기타 할인정보 홈페이지 참고)

당진문화재단 설립 10주년

# 전 세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하며 '문화도시 당진'을 위한 더 큰 도약으로

제27호 – [2·3기 출범기]
내용 확인하러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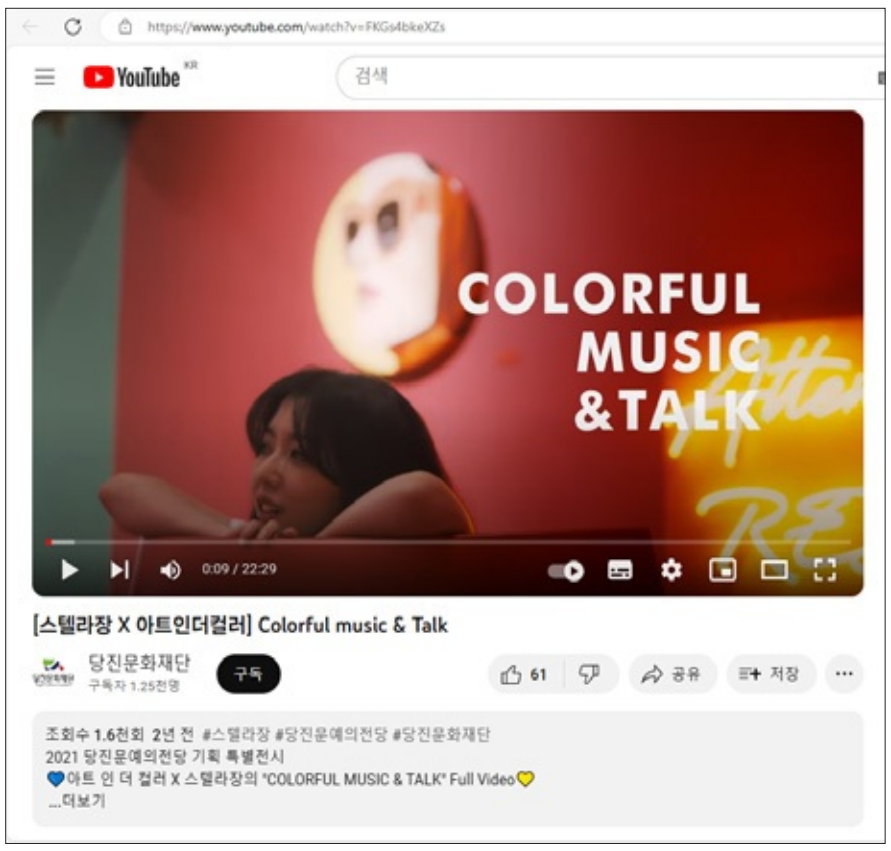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당진문화재단이 설립됐다. 당시만 해도 당진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에 소외된 지역이었다.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지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그 창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재단이 들어섰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연과 전시, 교육 사업 전반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창의성과 전 문성, 독립성을 갖춘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정착했다.

지난해 발간된 〈당진문화재단 10년사〉를 통해 당진의 문화예술발전에 있어 역할을 해온 당진문화재단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출범기 △안착기 △전환기 △팬데믹 위기 극복기 △도약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문화예술인과 함께 극복한 '팬데믹 위기 극복기'(2020년 1월~2021년 10월), 그리고 문화도시 당진 구현을 위해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한 '도약기'(2021년 11월~)를 수록한다.

## [4기 팬데믹 위기 극복기] 2020년 1월~2021년 10월

### 코로나19 위기…문화예술인과 함께 극복 나서



갤러리앳홈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기 안착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이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김홍장 이사장 취임 6개월 만에 당진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됐다.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은 수준 있는 민간 예술법인 등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이와 더불어 '당진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2020년부터 2021년 10월에 이르는 4기는 2013년 출범 이후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던 당진문화재단의 지표들이 일제히 정체되는 시기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팬데믹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산업과 일상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당진문화재단은 직격탄을 맞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코로나 블루'에 휩싸인 시민을 위로했다. 재단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살펴 소규모 인원 제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했다. 예술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허용하고 예술 강사 교육시수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업을 조정 운영했다. 모든 활동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업 진행을 병행하여 시행해나갔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오프라인 사업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으며, '메타버스 활용 정책 포럼' 등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했다.

가장 대표적인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공공문화 예술 프로젝트 自由롭게'다. '自由롭게'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에 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숨겨진 명소를 알리는 홍보효과까지 더해진 '1석 3조'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빛을 발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재단은 2020년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으로 공연분야에 '自由롭게', 시각분야에 '갤러리 앳 홈'을 신설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극복지원사업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 이 시기 중요한 사업 성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이다. 문화에 우열이 없듯, 예술장르에도 우선순위란 있을 수 없다. 당진문화재단은 장르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문화적 종의 다양성과 공생 진화를 위해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을 추진했다.

당진문화재단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방역당국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 나가며 꾸준히 사업성과를 이뤄내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기획전시 누적수는 2019년 78회에서 2020년 145회, 2021년 130회로 상승 곡선을 보였다. 전시관 누적 관람객수 역시 2019년 16,108명이었던 것에 비해 온라인 전시가 병행된 2021년에는 29,787명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로 전시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갤러리 앳 홈'을 신설하여 온라인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당진문화진흥공모사업 지원 단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8년 60개 단체에서 2021년 56개 단체로 감소폭이 미비하였다. 이 시기 신규사업으로 '당진문화예술데이터베이스조사사업'이 시행되어 당진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했으며, 2020년 당진문화정책연구조사의 일환으로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체제 및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진행해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토대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도비를 유치하여 2020년 16개 시군과 함께하는 제4회 '충남생활예술제'를 '제7회 당진생활문화예술제'와 겸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당진문화재단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당진문예의전당에서 파급력 있는 전문 공연들을 선보였다. 이전에 당진에서 보기 어려웠던 대형 가수와 해외 연주 단체가 당진을 찾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2020년에는 유네스코 200주년 기념 축하공연으로 당진문화재단이 기획, 제작한 댄스컬 안드레아 〈김대건〉을 선보이기도 했다.

## [5기 도약기] 2021년 11월~

### 2021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우수한 평가

출범 10년을 맞이한 2022년, 당진문화재단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당진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문화예술로 사회적 변화'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션을 위해 '지속가능한 문화와 시민문화자치'를 핵심가치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나갔다. 재단은 당진 시민과 문화예술인, 단체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자로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함께 지나며 '문화도시'구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2022년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리더십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관혁신으로 경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위한 지역예술인의 적극 동반자 관계 구축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운영사업의 영역 구분을 철저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활동 등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제4대 김규환 이사장에 이어 박기호 이사장이 취임했으며, 2020년 12월 김이석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2021년 4월, 당진시로부터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를 임시 위탁받아 설치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재단 내 센터를 직제 기구로 편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인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역사 가족 뮤지컬 '한국사 대모험'에 참여, 최고 금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한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뮤지컬 〈파가니니〉를 당진문화재단 기획공연으로 제작하여 선보였다.

문화재단 수상

앞으로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10년의 사업 성과와 더불어 미흡한 부분을 거울삼아 '당진시 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발맞춰 시민참여와 문화 활동을 확산하고 당진문화의 가치를 증진하여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문화정책포럼

문화가 ISSUE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 있슈(ISSUE)는
문화애호가를 위한 문화소식지입니다.

당진문예의전당 문화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당진문예의전당 기획 공연 및 전시의 할인혜택 및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세내용은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에서 (www.dangjinart.net)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8호 2023년 11월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당진문예의전당) (재)당진문화재단
T. (041)350-2911
www.dangjinart.kr

발 행 처 (재)당진문화재단
편집총괄 김이석(당진문화재단 총장)
기획총괄 김명재
사업담당 오세원
운영위원 오수용 | 김윤희 | 인치수 | 나재형
취재·편집·인쇄 ㈜당진시대신문사
편집 및 광고문의 041-350-2911

문화가 있슈(ISSUE)에 실린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재)당진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당진문화재단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9 772635 897003 91
ISSN 2635-8972

● 당진문예의전당 핵심사업

##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 Ⅳ.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바람

당진문화재단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미술과 음악이 함께 이뤄진 렉쳐 콘서트,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가 오는 11월 29일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사계절로 나누어 봄을 맞은 파리, 로마의 여름 햇살, 가을 고독한 뉴요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을 주제로 구성됐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러시아 이동파 화가들의 작품, 그리고 러시아 5인조의 음악들은 오랜 혼돈과 정체 끝에 러시아 예술가들이 드디어 그들만의 개성을 찾아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예술은 슬라브 민족만의 색채를 강하게 담고 있으며 특히 민중에 대한 예술가들의 애정어린 시선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한 레핀, 레비탄, 샤갈의 작품 속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함께 11월의 겨울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 일시 : 2023. 11. 29.(수) 19:30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 출연 : 피아노 배진우, 바이올린 강유경, 소프라노 이레
- 관람료 : 전석 1만원(할인정보 홈페이지 참조)
-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

## 클래식 음악의 재미를 알려줄
# '당진음악협회와 함께하는 재밌는 음악회'

당진문화재단은, 당진음악협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클래식 음악이 지닌 고유성과 그 특징들을 살려 관객과 정서적 교감을 이루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클래식 음악은 지루하다'는 통념을 깨고 '클래식 음악도 즐겁고 재밌다'는 생각을 줌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보급과 향유의 기쁨을 확대하고자 한다.

클래식 음악이 인간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은 정신적 치료를 돕고 나아가 건강하고 발전적인 인간상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번 음악회는 작품에 어울리는 영상, 조명 등 다양한 시각효과를 이용하고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연출로 재밌는 음악회를 만들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일시 : 2023. 12. 05.(화) 19:30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 전석 무료
-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

##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전하는 따듯한 선율
# 당진서 〈Dear Heart〉 콘서트 열린다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가슴 따뜻한 선율과 함께 선물처럼 당진을 찾아온다.

그의 이번 콘서트는 나에게 다정한 안부를 건네는 'Dear Heart' 타이틀로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피아노 솔로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첼리스트 이윤하, 플루티스트 한지은, 클라리네티스트 강신일로 구성된 콰르텟과의 연주도 진행돼 풍성함을 더한다.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키 구라모토는 꾸준한 창작으로 그가 녹음했거나 연주한 곡은 360여 곡에 이른다. 특히 'Lake Louise', 'Romance', 'Meditation' 등의 히트곡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따뜻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회상과 추억에 잠기게 하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한다. 은은한 사랑을 느끼게도 하는 그의 음악은 많은 관객들의 마음에 쉼표를 안겨준다.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신년을 준비하며 유키 구라모토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기대어 마음을 가만히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 출연 : 유키 구라모토, 바이올린 김지윤, 첼로 이윤하, 플루트 한지은, 클라리넷 강신일
- 일시 : 2023. 12. 17.(일) 17:00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할인정보 홈페이지 참조)
-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

##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온
# 나윤선 크리스마스 재즈콘서트 〈Feeling good〉

재즈 디바 '나윤선'은 오늘날 재즈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나윤선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당진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나윤선은 매년 100여 회에 이르는 해외 공연의 마지막을 항상 국내 팬들과 함께해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해외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당진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채워진 그녀의 12집 음반 〈Feeling good〉 수록곡들과 그녀의 독특한 캐럴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탄성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2023년 한 해 동안 당진문예의전당 공연을 사랑해주신 문화회원을 위해 기획한 크리스마스 특별 콘서트다. 당진문예의전당 문화회원(유료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 2매까지 무료(예매필수, 선착순 마감)로 예매가 가능하며 일반회원(무료회원)의 경우 유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 일시 : 2023. 12. 25.(월) 17:00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 문화회원(유료회원) 1인 2매 무료 (예매필수, 선착순 마감)
  일반회원(무료회원) 1층 R석 3만원,
  2층 S석 2만원(별도 할인 없음)
-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 티켓오픈 : 2023.11.14.(화) 14:00

● 당진문화예술학교 핵심사업

#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 지원 사업

당진문화재단이 충청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강사 전문교육과정인 '당진 아트에듀 콜로키움'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총 6강의 커리큘럼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문화예술개론 교육과 음악, 미술 관련 교육뿐 아니라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련 교육 등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있는 강의들로 구성해 효과적으로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

두 번째로 당진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지속 가능한 단계별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하고자 문화예술교육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당진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했다. 10월 19일 진행된 2차 협의회에서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성 및 전략을 수집하고 당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 연구를 진행했다.

오는 11월 16일에 열릴 3차 협의회는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 확립 및 향후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아트 에듀 오티' 사업이 11월 중에 진행된다. 이 사업은 문화기반시설 실무자 및 평생교육시설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전문가를 청빙해 실무자들과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당진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보해 시민들과 강사들에게 폭넓은 교육환경 제공하고자 한다.

## 2023 시민문화네트워크사업Ⅳ
# 〈당진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가평 워크샵〉 성료

당진문화재단이 2023 시민문화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 워크샵'을 지난 10월 9일 진행했다.

이번 가평 워크샵은 당진 내 청년 및 전문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 종사자 간의 네트워킹 형성과 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워크샵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워크샵은 자라섬에서 진행됐으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관람, 자라섬 꽃 페스타 관람, 재즈 페스티벌 관계자 현장 강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당진문화재단은 현직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계명국 감독을 현장 강사로 초빙해, 재즈 페스티벌의 발전과 성장 과정, 무대별 특징 등 양질의 정보를 참가자에 제공했다.

또한 워크샵 동안 오성환 당진시장, 자라섬 페스티벌 관계자, 당진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문화예술계에 발전을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인적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당진문화재단은 "앞으로 당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역 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 당진문화진흥 서포터즈 발대

2023 당진문화진흥 서포터즈가 발대했다.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9월 15일 당진문화예술학교 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13명의 서포터즈를 위촉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진행수칙 낭독, 취재 일정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 13명은 직장인, 학생, 주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2023 당진문화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된 61개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및 인터뷰 취재 등을 진행한다.

서포터즈의 취재 내용은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커뮤니티-보도자료 게시판 및 당진문화재단 인스타그램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연말에는 서포터즈의 전체 글을 모아 결과 보고집으로 제작해 배포될 예정이다.

당진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이 당진문화진흥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당진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 이주민·장애인 등 참여 프로그램 성료

당진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당진 이주민과 함께하는 소소閒 식탁〉, 〈나만의 문화다양성 도서 만들기2〉를 진행했다.

〈당진 이주민과 함께하는 소소閒 식탁〉은 이주민과 거주민을 대상으로 나라별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음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인생을 한 편의 레시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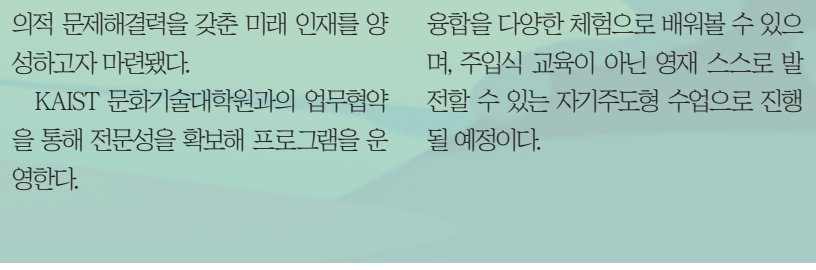
지난 10월 21일 문화공감터에서 상영회가 진행된 가운데, 북한의 송편, 언감자떡, 두부밥과 베트남의 짜조, 한국의 애호박 만두와 오이냉국을 소개했다. 상영회와 시식회를 통해 국적과 인종을 다르더라도 모두 비슷한 추억을 갖고 살아왔으며 삶의 모습이 다양할 뿐 모두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레시피 영상은 당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영상을 토대로 레시피북을 제작하여 12월 중에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나만의 문화다양성 도서 만들기2〉는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고자 기획됐다.

그림책 만들기 교육은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7회차로 진행됐으며, 총 11종의 책을 발간하였다. 지난 11월 5일에는 출판기념회가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열렸다.

#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 과학예술영재 아카데미



당진문화재단이 과학과 융합된 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2023 당진 예술영재 아카데미가 10월 28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보편적인 장르 중심의 예술교육이 아닌 과학 분야와 융합된 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5차시로, 1차시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 음악의 이해', 2차시 프로그램으로는 '메타버스와 ART'가 진행됐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는 △3차시 '자기부상열차 만들기' △4차시 '생성형 AI의 시대에서 직업과 진로 설계와 연구동향' △5차시 '카이스트 본원 현장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다양한 체험으로 배워볼 수 있으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영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 핵심사업

# 당진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당찬 사업준비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2.0 사업 공모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20년 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행정협의체 구성 등 주요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선 새로운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9월 제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2.0(가칭) 사업을 발표 했다. 당진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는 9월~현재까지 5명의 센터 직원들이 밤 낮 없이 사업을 준비하고 당진시에선

지난 10월 13일 당진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10월 23일 문화공감터에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마쳐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본 사업은 올해 권역별로 평가 대상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당진시는 당차게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준비하며 충청남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서류를 제출했다.

당진시는 그전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충남권 법정 문화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의 법정 문화도시를 선도하는 천안문화도시지원센터, 공주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당진이 예비도시 선정 시 추진할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17만 명 돌파,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족도시 당진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모범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당진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당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공감 콘서트〉

강연자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항상 질문받고 설명해 왔습니다.

어느 전문가는 얘기했습니다. '문화는 그냥 그러한 것'이라고요. 이 말 빌려오자면 당연하게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도 않았던 문화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되고 유행이 될 수 있고, 그걸 이끌어 내어 현재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을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발견하여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걷는 길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문화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도시 공감 콘서트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보다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연결해 콘서트를 즐기고 강연을 공감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문화도시를 꿈꾸며 당진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특별전시]

# 한흥복 작가의 〈꿈을 그리다〉 & 임상준 작가의 〈반짝반짝〉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역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과 함께 2023년 특별 기획전시의 문을 열었다.

이번 기획전시는 2회차로 구성되며 문화공감터 2층 실내전시관에서 진행된다. 1회차인 한흥복 작가의 〈꿈을 그리다〉 전시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렸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시각예술인과 함께 기획한 특별전시로 평면예술작품 10여 점이 전시됐다.

2회차로 지난 11월 7일부터 열린 임상준 작가의 〈반짝반짝(Gleaming)〉 전시가 11월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임상준 작가의 입체예술 작품 10여 점이 전시돼, 더 높이, 더 넓게 확장하는 데에 집중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깨워준다. 따뜻한 색감을 담은 그림과 행복한 고양이 '깜지, 꽁치, 츄' 의 따뜻한 일상의 순간을 담은 조각들을 보며 정서적 안정감과 위로 그리고 힐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시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응원의 메시지를 엽서에 남기는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 전시기간 : 11월 7(화) ~ 11월 24일(금)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공감터 2층 전시실 (매주 월요일 휴관)

[2023 당진문화재단 10주년 기념전시]

# 향토 기증·소장품 전시회 〈당진의 빛과 에너지〉

당진문화재단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당진의 향토 문화재 및 박물관과 연계한 향토기증 소장품 전시회가 12월 5일까지 개최된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의 향토 문화재 및 박물관과 연계해 각 기관의 소장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진의 원로 예술인인 이근배 시인의 소장 작품들과 함께 각 박물관에 기증된 소장품들의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향토전시를 통해 당진만의 특색있는 지역문화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전시기간 : 11월 10(금) ~ 12월 5일(화)
- 관람료 : 무료
- 장소 :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전시실 (매주 월요일 휴관)

# 청소년을 위한 힐링 콘서트 〈틴텐타임〉

2023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힐링 콘서트 〈틴텐타임〉이 청소년들의 뜨거운 반응을 연이어 불러일으키고 있다.

'틴텐타임'은 'Teen-age(10대의), Tem minut(10분), Time(쉬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분의 쉬는 시간처럼 달콤한 휴식시간 같은 공연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10월 15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4회 공연으로 문화공감터(구 당진시네마)에서 진행된다.

첫 공연은 쇼미더머니 11의 준우승자이자 대한민국 래퍼로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허성현이 출연하면서 전석매진이라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연이 열린 문화공감터에서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현장예매를 기다리는 청소년들의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후 10월 29일 가수 '쏠'과 11월 12일 래퍼 '신스'의 공연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11월 19일 가수 '황인욱'의 공연이 이어진다 .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당진 문화도시 사업의 거점센터로 운영되는 문화공감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스페셜 공연과 함께 문화도시 굿즈 나눔, 친필사인, 타투 체험 이벤트까지 무료로 준비했다.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달콤한 휴식 시간 같은 하루를 선물한다"며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 예술인 창작과정 지원사업 〈RE:SET리셋〉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청년 예술인 창작과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문화도시 실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진시 최초로 시도된다.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으로, 청년 예술인 및 청년문화에 애정이 있는 지역예술인을 위해 기획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5인은 약 2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브레인스토밍 과정부터 결과물 도출까지 창작 과정에 필요한 창작공간과 워크숍을 창작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 콘텐츠 제작비용, 창작폼 등을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발상의 과정을 기록하고 일상에서 얻은 영감을 창조적으로 풀어내 확장할 수 있도록 창작노트를 제작해 제공하고, 온오프라인에 해당 예술인과 작품 홍보를 지원한다.

오는 12월에 창작과정과 얻어진 성과물을 모아 문화공감터에서 함께 공유하고 전시·발표하는 공유회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창작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의 즐거움이 살아나고, 창의적인 문화 인력과 콘텐츠가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예술인을 만나다 | **이종수** 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장

# “문학은 인생 그 자체…문학으로 희로애락 전하겠다”

등단한 전문 작가로 구성…시·수필·소설 등 활동
2000년 창립해 매년 동인지 〈당진문학〉 발간
청소년문학상 통해 신진 문학인 발굴 힘써와

**올해 4월에 (사)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이하 당진문협) 지부장에 취임했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당진문협의 제8대 지부장에 취임하면서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진 문인협회를 이끌어 주신 역대 지부장님의 격려와 고견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이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잘해 나갈 것 같습니다.

**(사)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2000년에 창립한 당진문협은 정식으로 등단한 전문 작가들로 이뤄졌습니다. 지역의 작가들이 모여 당진지부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가졌고 약 4개월간의 준비 끝에 윤성의 초대지부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시와 수필, 소설, 아동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중견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동인지 〈당진문학〉 제22호를 발행하는 역사 깊은 문인협회입니다.

**당진문협은 매년 다양한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당진을 대표하는 문학단체로서,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고 당진문학제 참여 등을 통해 당진의 문학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문협은 청소년들에게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 문학인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매년 청소년문학상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전을 개최해 시민들이 보다 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화전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즐거움을 선사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원들의 시집을 전시·배포하기도 하고, 타 지역의 문인협회 지부와 교류하며 친목을 쌓고 교류전을 통해 당진문학의 발전을 더욱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종수 지부장님의 취임 후 당진 문인협회의 활동 및 사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당진문협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까? 비전 또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진시에는 작은 동아리 문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등단하지 못한 문학인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우리 당진문협에서 모두 끌어안을 생각입니다. 등단하지 못한 문학인은 등단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문협이 당진지역 예술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모든 문학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문학 활동을 할 때만이 개인의 발전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장님이 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문학인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문학을 전공한 문학인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소재를 전공한 공학도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마치고 나면 기행 수필 등을 즐겨 쓰곤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시상을 글로 적곤 했지만 어디에 내놓기가 쑥스러워 습작으로 그치곤 했습니다. 이를 본 아들이 등단해 활동해볼 것을 권유했고, 지난 2020년 4월 시사문단으로 등단했습니다. 늦게 등단했는데, 지난 4월 영광스럽게도 당진문협 지부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학과 시가 주는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역사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 담긴 인문학이라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있으므로 역사학도 있고 철학도 있는 것이지요. 그중 시는 희로애락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노래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닐까요.

**지부장님이 시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입니까?**

시는 청정한 마음을 깨닫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고향, 시골, 농촌, 자연, 그리고 친구 등 서정적인 시를 담는 그릇으로서 많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시인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 또는 소망이 있다면?**

‘펼치면 삼라만상을 덮고 접으면 터럭 하나 설 자리가 없다. 그것이 곧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왕성한 작품 활동 및 회원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더욱 성숙한 문학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당진문협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필을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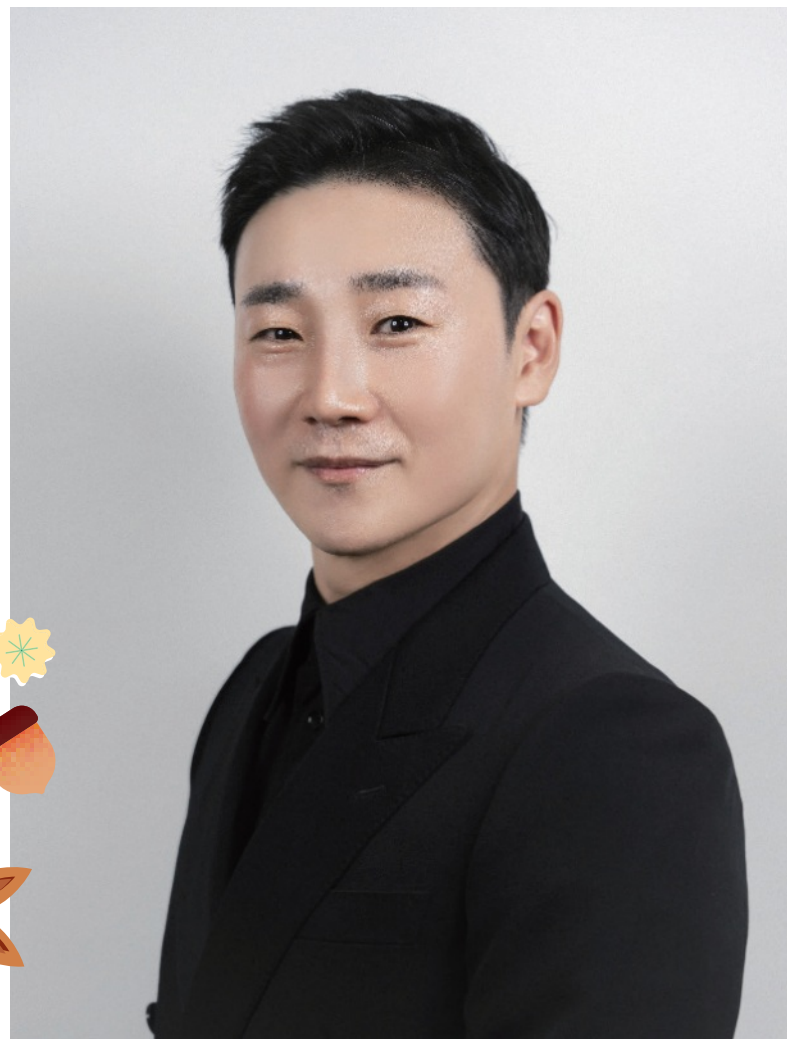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장으로서 당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최고의 아름다움은 문학을 통해 전개되고 문학 속에 희로애락이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문협이 당진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며, 문학을 통해 희로애락을 전도하는 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가 되겠습니다. 당진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문화人터뷰 | **신현지** 발레리노

# “발레초보 아이들 무대 오를 때 뭉클한 감동”

##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꿈나무교실 지도
## 꿈나무들 국립발레단 공연 전 오프닝 무대 선보여
## “다양한 장르로 꿈나무 발굴해 무대 만들었으면”



당진문화재단과 국립발레단이 협업해 무료 발레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매주 2회씩 발레 기초 동작을 배웠다. 학생들은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되어 지난 10월 14일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공연에 앞서 약 10분간 작품을 선보였다.
(사진 출처=국립발레단)

**<편집자주>**

‘국립발레단 Fly Higher with KNB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공연이 지난 10월 14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당진문화재단과 국립발레단이 협업해 미래의 발레리노, 발레리나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무대가 함께 마련됐다. 당진문화재단과 국립발레단은 공익사업 ‘꿈나무 교실’을 운영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당진지역 거주 초등학생들이 발레 수업을 받았으며,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도 함께해 문화복지를 실현했다. 꿈나무교실 15명의 아이들은 국립발레단의 공연 전 오프닝 무대에서 〈Wings〉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호에서는 꿈나무교실 교육을 맡은 발레강사 신현지 발레리노를 만나 그간의 준비 과정과 발레교실의 의미 등을 들어봤다.

**우선 신현지 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당진 꿈나무교실 교육을 맡은 신현지입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발레단 단원이었고 지금은 은퇴 후 개인단체를 통해 창작 작업과 대학과 전공, 비전공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당진문화재단과 국립발레단이 협업해 공익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꿈나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당진에서 꿈나무 교실을 진행하고, 당진 아이들을 만나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당진은 이번 꿈나무 교실 덕분에 처음 접했습니다. 당진 꿈나무 교실 아이들을 만났을 때 많은 인원수에 놀랐습니다. 인원이 많아 저 혼자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적응이 빨라 놀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꿈나무 교실에서는 무슨 수업들이 진행됐나요?**

국립발레단 Fly Higher with KNB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라는 공연에서 오프닝으로 꿈나무교실 아이들이 출연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이 무대에 서기 위한 발레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덧붙이는 말) 참여 학생들은 매주 2회씩 당진문예의전당에서 발레 기초 동작을 배우며 소중한 꿈을 키워왔다.

**꿈나무 작품 ‘Wings’는 어떤 작품입니까?**

발레 작품 중 백조의 호수를 보면 여자 무용수들이 팔 동작으로 백조의 날개를 표현합니다. 학생들이 발레를 배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10월 14일 무사히 아이들의 공연을 끝마쳤습니다. 당시 공연을 마치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대다수의 아이들이 발레를 처음 접하기에 하나씩 설명하며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 아이들이 무대에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이 뿌듯하면서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꿈나무교실 및 무대에 서는 경험을 통해 당진학생들에게 특히 가르쳐주려고 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발레 수업을 경험하여 발레에 대한 기초적 수행능력과 이해 및 무대경험입니다. 발레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춤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이번 꿈나무교실의 목적이죠. 예술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당진문화재단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으로 키즈 스테이지, 예술영재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당진문화재단이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릴 때 재능을 발견해 발전시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에서 훌륭한 일을 진행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재능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함께 무대를 만든다면 정말 멋진 무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매주 당진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순수한 감정과 힘들지만 견뎌내고 인내하는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당진문화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멋진 무대에 나아갈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책

#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이곳'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지난 9월 기준 당진지역 청소년(만 9~24세) 인구는 2만4875명으로 집계됐다. 당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개소 등 여러 청소년 시설이 자리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청소년 이용 시설 중 문화예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소개한다.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문화, 예술 활동이 지원되는 청소년의 열린 전용공간이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송악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소가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카페테리아, 북카페 등이 마련돼 있으며 포켓볼 당구대, 게임기 등이 구비돼 있다.

한편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청소년카페 '수다벅스'

당진시는 카페이면서도 진로 개발 공간이자 휴식·놀이 공간인 '수다벅스'를 꾸몄다. 수다벅스라는 이름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아이들이 의견을 모아 정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책도 보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또래끼리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카페테리아가 조성돼 있어 당진시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카페 수다벅스에서는 하루에 음료 1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축제 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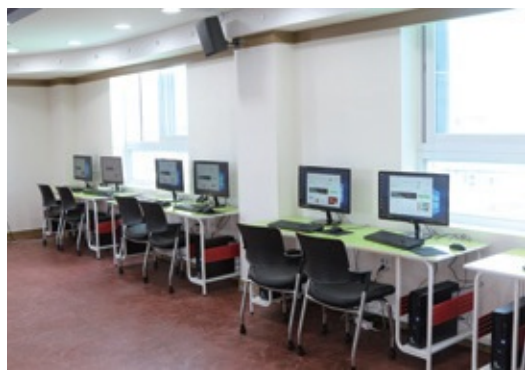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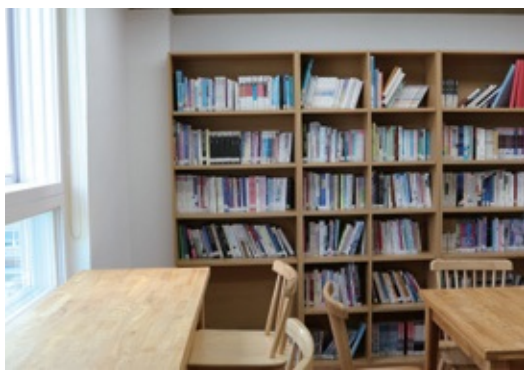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당진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 Teen's festival(이하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과 지역 중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유관 기관이 참가해 다채로운 체험 및 활동부스가 운영되고, 청소년 공연 동아리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

### 당진의 첫 청소년문화의집 '합덕청소년문화의집'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002년 7월 당진에 처음으로 생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당시 '당진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관했다. 지난해 7월 개관 20주년을 맞았던 가운데, 지난해 이뤄진 리모델링 공사로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청소년들을 맞이했다. 이곳에는 카페테리아가 조성됐으며, 노래방은 기계를 새것으로 바꾸고 방음벽도 개선했다. 댄스연습실은 나무바닥이라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바닥을 개선하고 지하에는 락밴드실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카페테리아가 조성됐고 포켓볼 당구대 등을 구비했다.

- 위치 : 합덕읍 문화길 39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 2~3층
- 운영시간
  - 평일(화~금) : 10:00~20:00
  - 주말(토~일) : 10:00~18:00
  - 동계(1~2월) :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가지정공휴일
  (운영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문의 : 363-5370~5

###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공간 '당진청소년문화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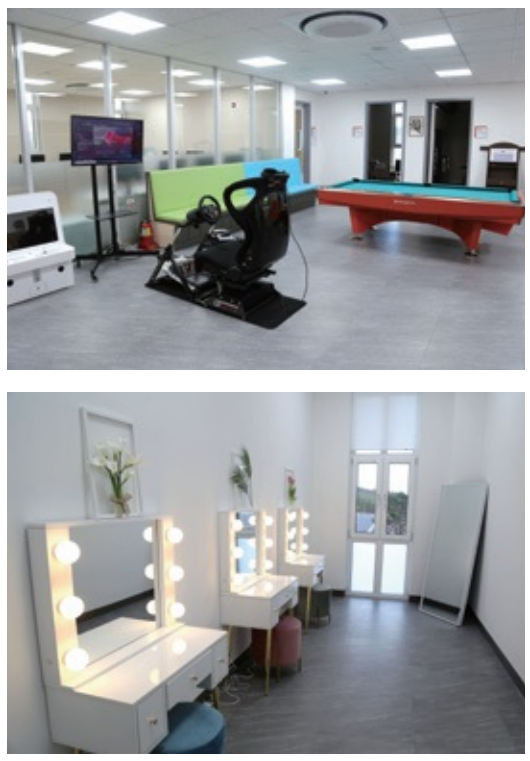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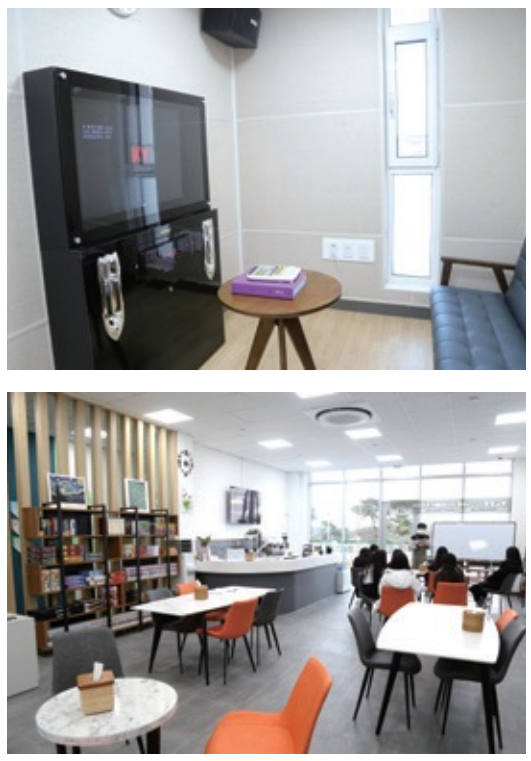
당진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휴식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 자치 활동, 교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를 육성하며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인격체 형성과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공간이다. 2009년 8월 개관한 당진청소년문화의집에는 VR존과 포켓볼 당구대, 플레이스테이션&X박스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카페테리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람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넷나래터, 학습공간 꿈터, 작은노래방, 댄스연습실 등이 마련됐다.

- 위치 : 무수동7길 142-26
- 시설규모 : 지상 2층
- 운영시간
  - 평일(화~금) : 10:00~20:00
  - 토·일 : 10:00~18:00
  - 동절기(1~2월) : 10: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 문의 : 358-4685~91

# 청소년 의견 담아 개관한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이전까지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진과 합덕 단 두 군데로 청소년시설이 부족했던 가운데, 지난 2020년 11월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면서 당진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총 3군데가 됐다.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담겨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공간으로 꾸며졌다. 건물 뒷마당에는 바람개비 공원을 조성했고 공연할 수 있는 작은 무대까지 설치했다. 1층에는 북카페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위한 학습 공간과 휴게실이 있다. 휴게실에는 화장대가 구비됐으며 2층에는 악기와 댄스 연습실이 있으며 노래방과 컴퓨터 공간이 있다. 2층 중앙에는 당구대와 VR기기와 오락기도 준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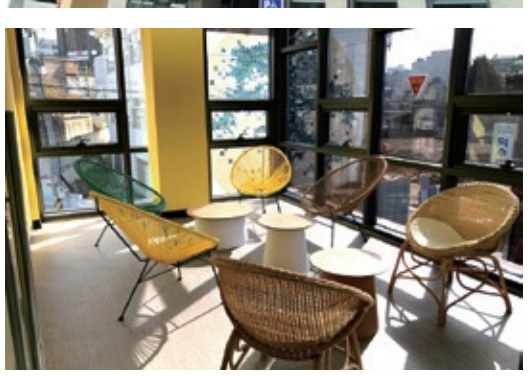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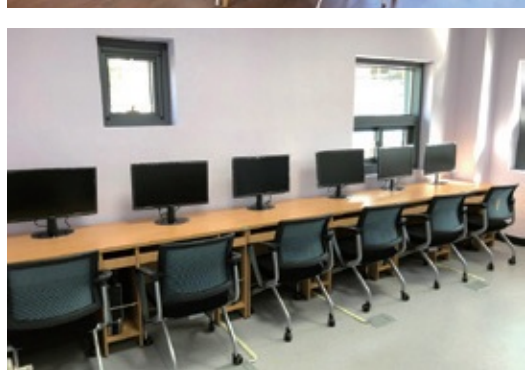
- 위치 : 송악읍 틀모시로 842
- 시설규모 : 지상 3층
- 운영시간
  - 평일(화~일) : 10:00~20:00
  - 동계(1~2월) : 10: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가지정공휴일
- 문의 : 358-3980~6

# 상담 특화 공간으로 변경된 '수다벅스 1호점'

수다벅스 1호점은 지난 2021년 당진시가족문화센터가 완공되며 센터 2층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원도심 인근에서 청소년들의 쉼터로 운영됐으며, 바리스타라는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카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러 청소년 이용 시설이 다수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을 맡았다. 카페 등 시설 이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뤄지면서 센터는 특성에 맞게 개인 상담 등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위치 : 서문2길 21 (2층)
- 운영시간
  - 평일(화~금) : 10:00~20:00
    (음료 제공은 오후 1시~오후 5시)
  - 주말 : 10:00~18:00
  - 휴관일 : 월요일
- 문의 : 356-8617~8

# 창작 공간 메이커스페이스실 마련한 '수다벅스 2호점'

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은 당진2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지난 6월 준공해,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수다벅스 2호점이 자리한 채운동은 여러 학교가 위치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이 부족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청소년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고자 이번 시설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청소년카페, 동아리실, 컴퓨터실, 댄스실, 노래방, 외부 카페테리아 등이 마련됐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실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기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머그프레스, 평판프레스, CNC자수기, 크리컷 메이커3 기기가 구비돼 있어서 머그컵, 파우치나 머리핀, 티셔츠 등을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

- 위치 : 채운동 305번지 (당진정보고 옆)
- 운영시간
  - 평일(화~금) : 10:00~20:00
  - 주말(토·일) : 10:00~18:00
    (일요일은 시설 공간만 제공, 음료 제공 X)
  - 휴관일 : 월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문의 : 352-1782

문화산책

# 100세 시대 '놀 줄 아는' 시니어의 문화예술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후생활

<편집자주>

지난 9월 기준으로 당진시 인구 16만 9784명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3만4933명으로, 당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 연장된 노년기를 위한 노인 대상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문화적 환경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노인들이 문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시설 내 문화예술 관련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 나서는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노인복지관(관장 최태선)은 지난 2012년 개관해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는 취미교실(통기타, 캘리그라피 등), 건강교실(난타, 탁구교실 등), 교양교실(컴퓨터, 스마트폰, 영어교실 등), 특별강좌(실버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실 등), 개방교실(생활체조, 당구 등)과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다.

### ① 평생교육지원사업: 사회교육프로그램

보통 복지관에서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해 학기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연계한 특별행사로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체험(나들이)을 실시하고, 사회교육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키도 한다.

- 이용대상 : 복지관 회원 중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어르신
- 신청방법 : 회원가입 후 접수 (1인 3과목)
- 수강료 : 일반과목 월 5000원 / 특강과목 1만 원, 컴퓨터 교실/컴퓨터 활용 월 1만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개 프로그램 무료 신청 가능, 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의사항
  - 반드시 복지관 회원가입 후 회원증을 지참해 방문
  - 모든 수강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본인 외에 신청이 불가함
  - 1인당 3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준비물은 개인 부담
  - 환불 요청시 반드시 영수증과 통장사본 지참(개강 전: 100% 환불 / 개강 후: 환불 신청일 기준 잔여회차 환산 후 환불)
  - 개방교실은 신청 없이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개방교실**

| 구분 | 내용 | 프로그램 |
|---|---|---|
| 취미교실 | 다양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 서양화, 캘리그라피, 통기타, 오카리나, 노래교실 등 |
| 건강교실 | 신체기능 저하 회복 및 신체 · 정신 건강 도모 | 스트레칭, 요가, 난타, 장구난타, 댄스스포츠, 탁구, 당구, 라인댄스 등 |
| 교양교실 |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 | 한문서예, 컴퓨터, 영어, 영어회화, 스마트폰 등 |
| 개방교실 | 생활체조, 탁구장, 당구장, 장기 · 바둑실, 북카페 등 | |

### ② 동아리활성화사업

복지관 동아리들은 정기적인 활동을 가지고 지역에서 재능기부 활동까지 펼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즐거운 노년 삶을 영위하며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노인상을 제시한다.

당진시노인복지관에는 세날웰빙댄스, 나이야가라웰빙댄스, 무지개통기타, 추억의 하모니카, 한울림 밴드, 사물놀이, 모니카 등의 동아리가 있다.

- 위치 : 시청1로 38
- 문의 : 360-3100

동아리 지역사회 공연

무지개통기타 동아리 공연 모습

사회교육프로그램 전시회

찾아가는 문화체험

사회교육사업 나들이(오감만족 힐링여행)

## 활기찬 노년의 삶 지원하는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2007년에 개관한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관장 김은실)은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가톨릭사회복지 이념인 사랑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미션과 어르신과 함께 성장하는 삶, 아름답게 완성해 간다는 비전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① 노년사회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도 노년사회교육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펼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각 프로그램실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용 교육을 물론 다양한 취미·예술 관련 활동들이 이뤄진다.

- 문학·디지털과: 한글은 사랑을 싣고, 스마트폰 초급·중급, 컴퓨터 초·중급, 영어 말하기
- 취미·예술과: 실버에어로빅, 당구교실, 민요교실, 웃음치료, 사물놀이 기초, 실버체조, 부르고 신나고, 하모니카, 생활탁구, 대회탁구, 색연필로 그림그리기, 난타 기초, 실버요가, 전통춤, 댄스 스포츠, 서예기초, 노래교실, 웰빙댄스

### ② 노년사회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일상과 예술을 가깝게 하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 미술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현장학습, 발표회 및 평가회를 지원한다.

### ③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동아리지원사업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동아리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동아리 활동도 지원한다. 복지관에서는 동아리 일심(서예), 둥지(난타), 소들(색소폰), 소들 메아리(색소폰 기초), 한아름 풍물패(사물놀이), 상록(아코디언)이 활동하고 있다.

- 위치 : 합덕읍 예덕로 411
- 문의 : 363-5330~1

노년사회화교육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은화수 합창단' 수업이 진행됐다.

색소폰 동아리 '소들'의 모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은화수합창단 음악여행

노인의 날 기념 사행시 공모전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이 2023년 지역별 두근두근 청춘제 '언제나 청춘'에 참여했다.

# 향토문화 창달을 목표로 '당진문화원' & 문화 활동 중심 커뮤니티 공간 '당진생활문화센터'

당진문화원(원장 김윤숙)은 1955년 창립된 이래 당진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 문화 및 사회교육 사업을 실시해왔다. '문화의 힘은 행복한 삶의 중심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 창의적인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당진문화원이 수탁 운영하는 당진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문화커뮤니티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문화활동을 원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및 발표 공간과 소규모의 모임과 자유로운 만남으로 당진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주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직접 펼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공간으로, '일상이 곧 문화'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만60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관과 달리 당진문화원 및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나이를 따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인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 ① 당진문화원 문화학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확산 및 문화감수성 계발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당진문화원의 문화학교는 보통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된다.

- 문화강좌: 하모니카, 문인화, 문학으로 자서전 쓰기, 장구난타, 민화, 가야금, 우리춤, 시낭송, 서예, 짚풀공예, 우리민요와 장구, 풍수지리, 캘리그라피, 기체조, 서각공예, 다도 등
- 신청방법: 방문 접수(남산공원길 151-16 당진문화원 사무국), 전화 접수(354-2367, 357-2367)
- 유의사항
  - 수강생이 정원의 70% 미만일 때 폐강
  - 과목, 장소, 운영일정 등은 수강생과 문화원의 협의에 의해 탄력적 운영
  - 신청가능 강좌는 2강좌 이하
  - 선착순 마감 원칙, 정원초과일 경우 대기자 접수

### ② 당진생활문화센터 마주침 공간(전시관 등) 운영

1층~3층 마주침공간에서는 지역 작가 및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그림과 공예 등 다양한 전시를 수시로 기획, 홍보 및 전시한다.

### ③ 당진생활문화센터 동호회실 및 다목적실 운영

당진문화원과 공간을 함께 사용한다. 1층에는 공연장이 있고, 2층에는 동아리실 2개, 소전시실 1개, 다목적 회의실이 1개 있으며, 3층에는 방음실 1개, 미술실 1개, 공예실 1개, 무용실 1개가 있다. 공간들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배정하며, 문화강좌 운영 시 동아리 신청단체보다 우선해 배정된다. 악기 및 민요 등 소음이 발생하는 단체는 타 동호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동아리 접수(5인 이상) 및 대관신청
  - 방문접수: 남산공원길 151-16 당진생활문화센터(2F) 사무실
  - 문의전화: 당진생활문화센터 354-2367 / 357-2367)
- 위치: 남산공원길 151-16 (1층 문화원 사무실, 2층 생활문화센터 사무실)
- 문의: 354-2367 / 357-2367

(※ 참고자료 : 당진시노인복지관·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당진문화원 및 당진생활문화센터 각 홈페이지 및 팸플릿 자료, 사회복지사 등)

당진생활문화센터 내부 모습

당진생활문화센터 내부 모습

당진문화원 문화학교

당진실버악단

전통민요 보존회

## 당진문예의전당 문화회원(유료회원) 가입 안내

**개인 회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당진시민들을 위한 특전으로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진행되는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를 더 쉽고,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회원**
문화바람·문화아람·문화보라
법인회원은 문화를 하나의 꽃(花)으로 설정하여 움트고, 열매를 맺고, 문화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향유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가입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 현장 방문 가입
- 전화 가입(041-350-2911)

| 등 급 | 개 인 | | |
|---|---|---|---|
|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 가 입 비 | 1만원 | 1만 5천원 | 2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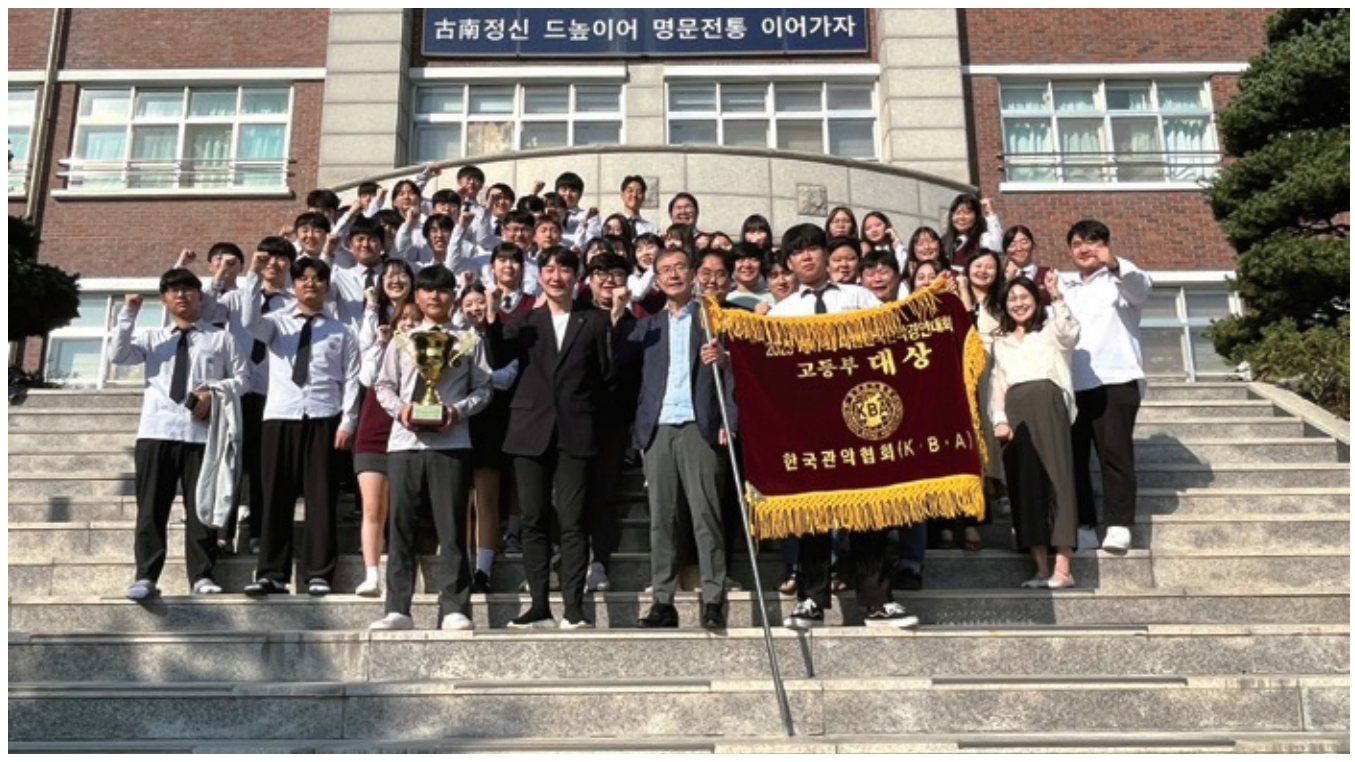
| 등 급 | 법인(1년기준) | | |
|---|---|---|---|
| | 문화바람 | 문화아람 | 문화보라 |
| 연회비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회원음악회 초청 | 50매 | 100매 | 150매 |
| 기업행사 대관 장소 제공 | 연1회 | 연2회 | 연3회 |
| 재단 소식지 문화가 이슈 광고 | 연1회 | 연2회 | 연3회 |
| 재단 소식지 기업로고노출 | 4개월 | 8개월 | 12개월 |

| 등 급 | 개 인 | 법 인 |
|---|---|---|
| 공동혜택 | - 당진문예의전당 기획공연·전시 10~30% 티켓할인<br>- 당진문예의전당 공동기획 대관공연·전시 10~30% 티켓할인<br>(* 단, 회원 등급별로 예매 가능한 좌석 등급 및 매수가 상이할 수 있음)<br>- 문화(유료)회원 선예매 서비스 제공<br>- 월간프로그램가이드 구독 서비스<br>- 〈문화가 이슈〉 소식지 구독 서비스 | |

[예술 꿈나무를 만나다] 호서고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 맑기도 화려하기도 한 금빛 관악 선율이 울려 퍼지다

## 2023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대상 수상
## 음악 통해 다양한 능력과 가치 배우며 성장
## 색다른 콘셉트로 정기연주회 12월 개최 예정




호서고 윈드 오케스트라가 2023 제47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학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과목 위주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예술 활동이 적극적인 호응을 받기는 힘들다. 하지만 호서고등학교에서는 윈드 오케스트라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맑은 음색을 가진 목관악기와 화려하고 웅장한 소리를 들려주는 금관악기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 1학년부터 3학년까지 50명 활동

호서고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교장 이규영, 지도교사 성용)는 이병국 음악교사의 역할로 지난 2000년 24인조로 창단됐다.

현재 호서고 윈드 오케스트라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50명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3월 초에 단원 모집이 이뤄지는데 음악을 전공 삼은 학생들이 가입하는 것은 물론, 취미활동으로 음악하고 싶은 학생들도 참여한다. 악기 편성으로는 플룻·오보에·색소폰 등 목관악기와 호른·트럼펫·트럼본·튜바 등 금관악기, 큰 북·드럼·마림바 등의 타악기로 구성돼 있다. 현재 오케스트라에는 전공생(1학년 김서겸/튜바)이 1명이 있다. 지도교사로는 지난해 호서고에 첫 부임한 성용 음악교사가 지도하고 있다. 성용 지도교사도 호서고 졸업생으로 호서고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과목 위주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예술 활동이 적극적인 호응을 받기는 힘들다. 하지만 예술교육은 고등학교 진학 선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의 진로 범위를 더욱 넓혀주기도 한다. 또한 창의력과 자기표현, 문제해결 능력, 감정 조절, 협업 등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 가치를 키워낼 수 있도록 돕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호서고 학생들은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 동아리·방과후학교 시간 통해 연습

호서고 윈드 오케스트라는 학교 동아리 시간과 방과후학교 시간을 통해 연습한다. 동아리 시간은 한 달에 3~4시간 진행되는데, 특히 전문 강사들이 모든 악기에 대해 눈높이교육으로 수업을 지도한다. 방과후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합주 형태로 연습이 진행된다. 1년 치 활동을 계획해 이뤄지는데, 처음에는 악기별로 운지법 등 악기 기초를 배우기 시작한다. 여름 동안에는 보통 대회를 준비하는데, 대회 출전 전 2개월부터는 대회 곡을 집중 연습한다.

특히 호서고에서는 학교 여름 방학 기간에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이전에는 합숙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는 등·하교식으로 바뀌어 진행하고 있다.

최지선(2학년/클라리넷 취미생) 학생은 "캠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만 하기 때문에 손가락도 아프고 입술도 터서 힘들기도 했기만 가장 즐겁기도 했다"면서 "친구들과, 파트원들과 더 돈독해지고 어려운 것을 같이 해냈을 때 즐거움으로 힘든 것을 잊게 된다"고 말했다.

### 올 연말 정기연주회 개최 예정

대외활동으로 호서고 윈드 오케스트라는 각종 관악대회에 출전하고 연말이면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1년 충청남도 음악경연대회 은상 수상을 시작으로 같은 대회에서 금상,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은·금상 등 다수의 대회에서 입상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최 한·일 학생문화예술교류 방일연주회에 참가, 일본 오이타현 나가쓰키타 고등학교와 이사카와현 중학교선발취주악단과 합동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에 열린 제47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호서고 윈드 오케스트라가 고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성용 지도교사는 "연주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운 곡이었는데 학생들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면서 "대상 수상에 학생들도, 나도 모두 무척 기뻤다"고 전했다.

윈드 오케스트라는 오는 12월 27일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정기연주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클래식의 매력을 선보이고자 특별한 콘셉트를 잡고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학교의 피아노 전공생의 무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성용 지도교사는 "정기연주회는 1부와 2부를 나눠서 10곡 이상의 곡을 공연할 예정으로, 특별한 콘셉트를 구상하고 있다"며 "윈드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호서고 윈드 오케스트라가 2023 제47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 출전해 곡을 연주하고 있다.

### [학생 한마디]

• **김서겸(1학년/튜바 전공생)**: 음악과 악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전공으로 하고자 윈드 오케스트라에 들어왔어요. 튜바를 맡고 있는데 저음을 주로 내는 악기로,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어 부드러운 저음이 매력적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반복되고 지치는 일상에서 악기를 불면 재밌고 활력을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 **이주완(2학년 부악장/트럼본 취미생)**: 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할 때 윈드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를 찾아왔어요. 트럼본은 다른 금관악기(트럼펫, 호른 등)에 비해 더 크고 멋있는 소리를 가졌으며, 슬라이드로 악기의 음을 조절하다 보니 관객 입장에서 볼 때 더 눈에 띄게 활동적인 것이 보는 재미도 주는 악기에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예술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짧게나마 잊고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최지선(2학년/클라리넷 취미생)**: 예전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동아리를 찾다가 중학생부터 관악부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관악부에서 클라리넷을 맡고 있는데 바이올린과 같이 주 멜로디를 연주하고 음역대의 프레이즈가 넓은 것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캠프를 하면서 가장 힘들기도, 즐겁기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만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친구들과, 파트원들과 더 돈독해졌고 어려운 것을 같이 해냈을 때 즐거움으로 힘든 것을 잊게 돼요.

• **이우상(2학년/알토 색소폰 취미생)**: 선생님의 권유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과 배려,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토 색소폰을 담당하고 있는데, 색소폰은 대부분이 금속으로 돼 있으나 갈대를 사용해 만든 조음 부품인 리드로 소리를 내고 있어서 목관악기로 분류돼요. 목관악기적 특성과 금관악기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관악합주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 **김동은(3학년 악장/타악기 취미생)**: 악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여러 악기와 화합을 맞춰가며 점점 더 멋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타악기는 리듬에 중점을 맞춘 악기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음악의 템포를 조율하고 다른 악기들이 표현해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정말 좋은 합주를 해냈을 때 즐겁고 뿌듯해요. 각 학년끼리 잘 대화하지 않는 다른 동아리들과 다르게 같은 동아리 내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좋아요. 또한 직접 악기를 연주해보며 음악의 구조나 화성학 등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 시니어의 사진으로 보는 인생 〈노(老)는 사진관_Play with PHOTO〉

## 60대부터 80대의 시니어 15명 참여
## 11월말 활동 내용 모아 전시회 개최

당진문화재단이 시니어들의 인생을 사진을 통해 돌아보는 〈노(老)는 사진관_Play with PHOTO〉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노(老)는 사진관_Play with PHOTO〉는 '사진을 활용한 인생 아카이빙'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통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쉼 없이 달려온 시니어에게 지금까지 본인의 삶을 사진으로 담고 느끼며 동시대를 살아온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시니어 사회공동체 축소 및 사회활동 결핍 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에는 15명의 시니어 학습자가 참여한다. 인생 제2막을 함께하고 있는 시니어 부부,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최고령 80대 시니어와 공무원 정년퇴임을 한 지 1년밖에 안 된 60대 막내 시니어, 젊은 시절 박격포 부대를 이끌었던 밀리터리 시니어 등 다양한 노년이 함께 노는 사진관의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당진문화예술학교 세미나실에서 모이고 있다.

### 콘셉트 가진 5개 스튜디오

지난 9월 6일에 시작한 교육은 11월 22일까지 12회차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총 5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스튜디오인 '청춘(靑春) 스튜디오'는 나의 이름이 아닌 부장님, 선생님 등의 직함 또는 누군가의 어머니·아버지·할머니·할아버지로 불리던 시절을 지우고, 내 이름 세 글자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 각종 재료와 자연물을 이용해 학습자의 이름 세 글자를 블루프린팅으로 나타냈으며 청춘 스튜디오라는 콘셉트에 맞춰 파란색의 작품을 제작했다.

두 번째 '흑과백 스튜디오'에서는 각자의 어릴 적 추억 혹은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과거 흑백사진을 발표했다. 어머니와 찍은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들과 찍었던 학창시절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이렇게 발표한 사진은 원단으로 프린팅해 자수를 놓는 작업을 통해 다시 한번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빛바랜' 스튜디오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발표하고 이를 직접 촬영해 작품으로 제작했다. 학습자들은 친정어머니가 남긴 국자와 시어머니가 남긴 주걱, 어머니께 처음으로 사드렸던 화장품, 시아버지가 가족들이 헤어졌을 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나무토막 등 다양한 사연과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왔다. 소중한 물건에 온전히 집중해 촬영하는 활동을 통해 소중한 물건의 의미와 물건에 담긴 사연을 추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과거·현재·미래의 '나' 화보로 담아

네 번째 '셀프 스튜디오'는 MZ세대에서 유행하는 사진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접 촬영해봤다. 특히 촬영에 앞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활동과 감정을 표현을 해보는 활동을 통해 사용하지 않던 얼굴의 근육을 사용해 보고, 학습자 간의 칭찬 릴레이 및 사랑 고백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며 몰랐던 나의 표정에 대하여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컬러풀 스튜디오'에서는 앞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에 대해 알아보며 다양한 나를 알아간다. 또한 이를 한 장의 화보로 나타내어 미래의 나, 앞으로 되고 싶은 나, 여태까지의 삶을 통해 정리한 나에 대해 생각해 보며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문화공감터(구 당진시네마) 2층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개막식은 11월 29일 1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정리되고 담겨있는 작품을 보며 그 사람의 발자취를 함께 밟아보았으면 한다.

# 2023 아티스트 오브 당진

## [당진 차세대 작가전] 장동욱 展 '유실물 보관소'

2023 아티스트 오브 당진 차세대 작가전에 선정된 장동욱 작가의 전시 〈유실물 보관소〉가 오는 11월 24일까지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장동욱 작가는 유년기 모호한 기억과 교차하는 풍경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풍경들은 절정이 다소 지나간 곳들로 덩그러니 남겨져 잊히거나, 증발되길 기다리는 모호한 도시의 풍경과 사물들에서 발생한다. 누군가의 흔적이 남겨진 도시에서의 삶은 과거 문전성시 하던 성수기의 관광객들이 들고난 자리에 남겨진 기억의 잔해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였던 관광지에서의 삶과도 닮아있다.

작가와 닮아있는 도시에 소멸되는 것들에 아련함을 감지하며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 횡적인 기억에 관심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작가가 있는 이곳에서 이러한 기억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캔버스에 나열하며 사라져가는 시간들을 기록한다.

'유실물(遺失物)'은 점유자가 흔히 잃어버린 물건을 통틀어 의미한다. 장동욱 작가는 유년기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가 남겨놓은 흔적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도시를 표류하는 사물과 풍경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곳에 머물며 타자의 발견과 동시에, 기억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시간성이 발동하며 이러한 장소들을 기반으로 이번 전시를 개최하려 한다.

##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전] 인주리 展 '시간의 서랍'

2023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전에 선정된 인주리 작가의 〈시간의 서랍〉 전시회가 오는 11월 24일까지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인주리 작가는 일상 속 무용해진 주변의 사물이나 공간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오랫동안 잊혀진 사물을 찾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잊고 싶지 않은 시간을 시각화 하고 있다.

일상 삶의 사물이 오브제가 되어 이미지화가 되고 무용했던 사물은 이미지 속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 삶의 기억을 환기하는 또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순간 실존을 증언하는 사진 속에서 영원히 유용해져 이별하게 될 순간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 문화도시를 이끄는 당진 지역예술인 학술회 〈지역 공공예술의 확장 가능성과 예술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 개최

당진지역 예술인의 역량강화 및 문화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학술회 및 워크숍이 지난 7일 문화공감터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당진지회(지회장 백태현)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당진의 도시 공공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기회를 개발하는 등 지역 공공예술을 확장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는 '지역 공공예술의 확장 가능성과 예술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예술인과 당진시의원, 문화예술계 당진시 공무원들을 초대해 진행됐다.

# 올 겨울 이 공연! 이 전시!

## [전시] 장동욱 展, '유실물 보관소'

- 사 업 명 [2023 아티스트 오브 당진] 2023 당진 차세대 작가전
- 전 시 명 장동욱 展, '유실물 보관소'
- 전시기간 2023. 11. 10.(금) ~ 11. 24.(금)
- 장 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제1전시실
- 관 람 료 무료
- 관람대상 전 연령(미취학 아동 보호자 동반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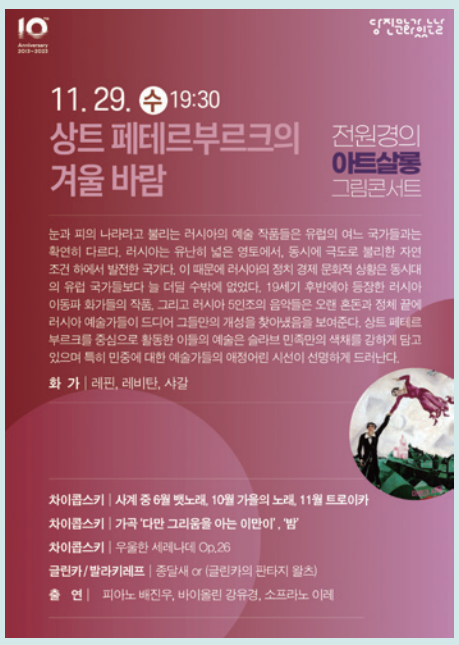
## [전시] 인주리 展, '시간의 서랍'

- 사 업 명 [2023 아티스트 오브 당진] 2023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전
- 전 시 명 인주리 展, '시간의 서랍'
- 전시기간 2023. 11. 10.(금) ~ 11. 24.(금)
- 장 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제2전시실
- 관 람 료 무료
- 관람대상 전 연령(미취학 아동 보호자 동반 필수)

## [뮤지컬]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

- 사 업 명 [2023 키즈스테이지_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 공 연 명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
- 일 시 2023. 11. 24.(금) 10:00, 19:30 / 11. 25.(토) 11:00, 14:00
- 장 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 람 료 R석 3만원, S석 2만원(할인정보 홈페이지 참조)
- 관람대상 초등학생 이상
  (6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 [렉처콘서트]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 콘서트〉 Ⅳ.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바람




- 사 업 명 [2023 당진 문화가 있는 날]
- 공 연 명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 콘서트> Ⅳ.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바람
- 출 연 피아노 배진우, 바이올린 강유경, 소프라노 이레
- 일 시 2023. 11. 29.(수) 19:30
- 장 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 관 람 료 전석 1만원
- 관람대상 초등학생 이상

## [음악회] 음악협회와 함께하는 '재밌는 음악회'

- 사 업 명 [2023 그랜드시즌]
- 공 연 명 음악협회와 함께하는 '재밌는 음악회'
- 출 연 (사)한국음악협회 당진지부
- 일 시 2023. 12. 05.(화) 19:30
- 장 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 람 료 무료
- 관람대상 초등학생 이상

##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 사 업 명 [2023 그랜드시즌]
- 공 연 명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 출 연 유키 구라모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첼리스트 이윤하, 플루티스트 한지은, 클라리네티스트 강신일
- 일 시 2023.12.17.(일) 17:00
- 장 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 람 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할인정보 홈페이지 참조)
- 관람대상 초등학생 이상

## [콘서트] 나윤선 크리스마스 재즈 콘서트 〈Feeling good〉

- 사 업 명 2023 그랜드시즌
- 공 연 명 나윤선 크리스마스 재즈콘서트 <Feeling good>
- 출 연 나윤선, 막심 산체스(Maxime Sanchez), 토니 팰만(Tony Paeleman)
- 일 정 2023. 12. 25.(월) 17:00
- 장 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 람 료 문화회원(유료회원) 1인 2매 무료 (예매 필수, 선착순 마감)
  일반회원(무료회원) 1층 R석 3만원, 2층 S석 2만원(별도 할인 없음)
- 관람대상 초등학생 이상
- 티켓오픈 2023.11.14.(화) 14:00

## 언론에서 본 당진문화재단

■ 인재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 특강

# "축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

당진시와 당진문화재단이 지난 4일 인재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을 초대해 '축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인재진 감독은 합덕 출신으로, 올해로 20년 차를 맞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첫 회부터 기획·총괄을 맡고 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가을을 대표하는 야외 페스티벌이다.

아시아 페스티벌 중 유럽 재즈연합(이하 EJN)에 가입 승인을 받은 페스티벌은 자라섬이 유일하다. EJN은 세계 최대의 재즈 네트워크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35개국에 약 200여 개의 재즈 단체가 속해 있다. 올해 역시 유럽과 미국 등 58개 국가에서 아티스트 380팀을 초청해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인 감독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시사하는 점과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계기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 비법을 전했다.

**왜 자라섬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게 됐을까?**

마땅치가 않았다. 그때 공무원이 '여기라도 가보겠냐'며 제안한 곳이 자라섬이었다. 자라섬은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황무지였다. 인 감독은 이곳이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때로는 가라앉는 자라섬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니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자신 있었다. 자라섬을 알기 ... 로 알게 된 핀란드 포... 탄생시킨 기획자 유... 통해 포리 페스티벌... 면서 한국에서도 페스... 킬 수 있다는 자신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시사하는 점**

인 감독이 말하는 ... 스티벌이 시사하는 ... 가평군은 인구 6만2... 은 동네다. 면적은 서... 크지만 재정자립도...

# 시민문화네트워크 일환으로 가평 워크숍 다녀와

당진문화재단이 2023 시민문화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 워크샵을 다녀왔다.

...을 관람하고 그 외에 관계자로부터 현장 강의를 들었다. 특히 당진문화재단이 초빙한 현직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계명국 감독이 현장 강사로 나서 재즈 페스티벌의 발전과 성장 과정, 무대별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당진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역 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발레로 만나는 돈키호테…화려한 안무에 '기립박수'

당진문화재단 – 국립발레단 주최·주관
꿈나무 교실 운영에 창작 무대도 선보여

우아한 춤선에 발레리나들의 재기발랄한 에너지가 쏟아졌다. 빠른 박자의 음악에 맞춰 회전하고, 발을 차 도약하는 점프와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의 군무 등 현란한 안무가 끊임없이 선보여졌다. 관객들은 꿈...

무대가 함께 마련됐다. 당진문화재단과 국립발레단은 공익사업 '꿈나무교실'을 운영,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당진지역 거주 초등학생 15명이 발레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도 함께해 문화복지를 실현했다.

공연 당일, 먼저 10분 내외의 '꿈나무 작품'이 펼쳐졌다. 이날 발레 꿈나무들은 그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 한마음으로 연습해온 발레 동작들로 구성한 창작 무대를 선보여 감동을 자아냈다.

이어 70분 내외의 ... 전막발레' 공연이 이어...

지난 14일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공연이 진행된 ... 학생들과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이 커튼콜 인사를 전하고 있...

연은 국립발레단이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전막 작품의 주요 장면을 뽑아 해설과 함께 선보인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시리즈 중 하나로,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

질이 사랑을 ... 파드되(2인무... 쏟아졌다.

한편 이번 ... 금은 전액 ...

...편의 한수미 기자 d91...

# 제2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출범

유수아 취재기자 (swanim919@naver.com)

...박종희 신성대 교수

...시 당진을 위해 제2기 당진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지난 13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시 문화도시 조성 ...성을 위해 노력하

# 시장과 문화를 엮은 '시너지' 페스타

당진문화재단

추석 전 대목장을 맞아 당진문화재단이 제1회 시너지 페스타가 지난달 25일에 열렸다.

당진문화재단은 당진문화도시 실현프로젝트 '시장, 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오일장을 중심...

리아 빈 국립음대 오페라과를 졸업한 김태선 성악가를 시작으로, 당진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뮤지컬 문화예술단체 예담의 뮤지컬 갈라, 원희선 색소폰 연주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인 정경희 무용수, 국악창작앙상블 RC9, 어린이 대상 전문공연기획 톰방이 참여했다.

# 당진시 2023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2기 출범

한수미 취재부장 (d911112@naver.com)

...체 협력회의 개최…부시장 등 66개 팀장 참석

...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회의가 지난 23일 문화공감터에서 열렸다.

...도시 공모가 다음 달 14일까지 ...
...가 지난 23일 문화공감터에서 열...
...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
...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 활...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12...
...다시 심사해 2024년 말 법정 문...

# 이종섭 작가전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

2023 당진 올해의 작가전, 오는 27일까지 진행

2023 당진 올해의 작가전인 이종섭 작가전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가 오는 27일까지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작가전은 당진시문화재단의 2023아티스트 오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13일 개막을 시작으로 15일 간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제1, 2전시장에서 100여 점의 설치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종섭 작가는 2000년대부터 삶의 양식이 개인화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술 작업을 해왔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갖기위해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 작품들과 카툰 형식의 구성으로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전시를 시도했다.

읍내동 출신으로 당진초·당진중·당진상고를 졸업했다. 또한 서울에서 9회 가량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원래 저는 장난도 잘하고 밝은 성격인데 작품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게 됐다"며 "작업하는 동안 함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배려를 해주신 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작가전이 오는 27일가지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유수아 기자 swanim919@naver.com

# 문화재단 박기호 이사장 퇴임…다시 시장 체제로 전환하나

조직 진단 결과 지자체장 이사장 겸직 체제 전환 방침
당분간 이종우 당진시 문화관광과장이 이사장 직무대행키로

박기호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 가운데,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아 이종우 당진시 문화관광과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당진시 조직 진단에 따라 당진문화재단은 민간 이사장 체제에서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박기호 아미미술관 관장은 지난 2021년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 지난 3년 동안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지난 3일 임기를 마쳤으며, 별도의 퇴임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6일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의 민간 이사장 체제에 대해 "당진시 출연기관으로서의 현실적 효용성이 미흡해 지자체장을 이사장으로 전환해 현실적 재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장이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직을 겸하고, 현행 사무총장이 대표이사로 직책이 변경될 예정이다.

당진문화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조례와 정관을 개정한 뒤, 오성환 시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며, 이사장 공백 기간 동안 이종우 당진시 문화관광과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된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 10대의 10분 쉬는 시간 '틴텐타임!'

랩퍼 허성현 공연으로 첫 회 마쳐
오는 29일 '쏠' 공연, 다음 달에도 이어져

당진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가 2023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힐링 콘서트 '틴템타임' 첫 회를 지난 15일에 진행됐다.

틴템타임은 Teen-age(10대의), Ten minute(10분), Time(쉬는 시간)'의 뜻을 담아 청소년 대상으로 10분의 쉬는 시간처럼 달콤한 휴식 같은 공연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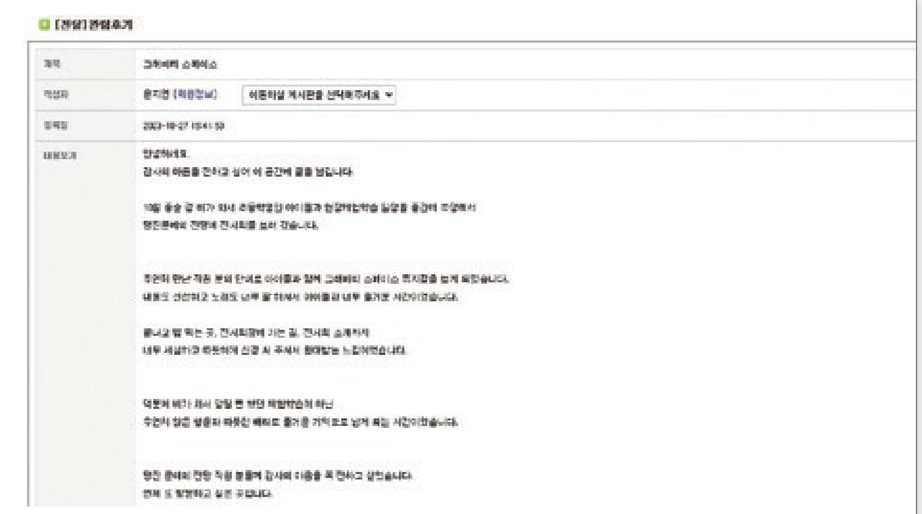
공연은 총 4회로 나눠져 있으며 첫 회는 랩퍼 허성현이 공연했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쏠(SOLE), 다음달 12일에는 신스(SINCE), 19일에는 황인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더불어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전시 '꿈을 그리다'가 마련돼 있으며 타투 체험 이벤트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은 당진문화공감터 공연장 4층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다. 공연 시간은 총 50분이며 공연 하기 전 30분 전에 입장해야 한다.

- 문의 : 350-2960~4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 SNS 후기글, 고객의 소리



고객의소리 – 그래비티 스페이스 관람후기

# 2023 공연 및 전시

10TH Anniversary 2013~2023

## GRAND SEASON

한국가곡 100년을 노래하는 <2023 신춘음악회>
부다페스트 소모기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뮤지컬 홀릭, 뮤지컬 음악과 사랑에 빠지다.
아카펠라그룹 엑시트(EXIT) Disney Medley
현남매 트로트 콘서트
조수미 콘서트 <In Love 사랑할 때>
명품연극 늘근도둑 이야기
뮤지컬 파리넬리 <Farinelli>
Vienna Classic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맘마미아>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이머시브시어터 <그래비티 스페이스>
걸작으로 만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친정엄마와 2박3일
음악협회와 함께하는 <재밌는 음악회>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나윤선 크리스마스 재즈콘서트 <Feeling good>
2023년 송년음악회

## Art festival

제10회 당진생활문화예술제 <열 번째 함께 빛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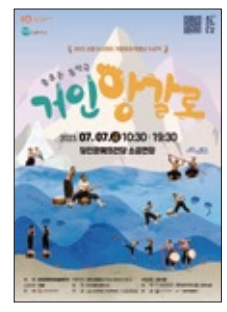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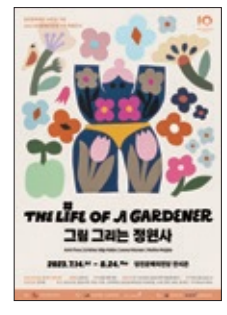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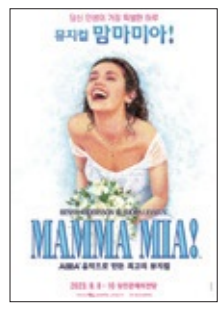
## 당진문화가 있는 날

젊은 거장, 그리고 봄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
I. 봄을 맞은 파리
II. 로마의 여름 햇살
III. 고독한 뉴요커
IV.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
우리 아이들과 꿈꾸는 <동요콘서트>
세계평화기원 음악회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트리오 In>

## 키즈스테이지 특별공연

국악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춤추는 음악극 <거인 앙갈로>
정형일 Ballet Creativ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

## ARTIST of DANGJIN

<이 시대의 작가전 I> 시대를 그리다 - 장철석
<이 시대의 작가전 II> 밭 뜰 - 이상옥
<전시공유플랫폼> 그림 그리는 정원사
<올해의 작가전>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 - 이종섭
<올해의 사진작가전> 시간의 서랍 - 인주리
<차세대 작가전> 유실물 보관소 - 장동욱

주최·주관 당진문화재단 Dangjin Cultural Foundation | 당진문예의전당 Dangjin Culture & Art Center | 당진문화예술학교 Dangjin Culture & Art School |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 Dangjin Cultural City Support Center 예매 | www.dangjinart.kr 문의 | 041-350-2911~6